

2016 동계방학

영글(영화와 글쓰기) 클럽
우수사례 모음집



C/O/N/T/E/N/T/S

조주연, 김예준 학생의 활동 보고서

1

2

한미영, 김선영, 정유진 학생의 활동보고서

2016학년도 동계방학 영글 클럽

I. 조주연, 김예준 학생의 활동보고서

너의 이름은

1. 감상 영화 소개 및 줄거리

영화감상 일시	2017년 1월 6일 금요일
영화감상 장소	의정부 CGV
영화 제목	너의 이름은
감독	신카이 마코토
주연	카미키 류노스케(‘타키’ 목소리 역) 카미시라이시 모네(‘미츠하’ 목소리 역)
영화 장르	애니메이션
줄거리	<p>아직 만난 적 없는 너를, 찾고 있어 천년 만에 다가오는 혜성 기적이 시작된다</p> <p>도쿄에 사는 소년 ‘타키’와 시골에 사는 소녀 ‘미츠하’는 서로의 몸이 뒤바뀌는 신기한 꿈을 꾸다 낯선 가족, 낯선 친구들, 낯선 풍경들... 반복되는 꿈과 흘러가는 시간 속, 마침내 깨닫는다 우리, 서로 뒤바뀐 거야?</p> <p>절대 만날 리 없는 두 사람 반드시 만나야 하는 운명이 되다</p> <p>서로에게 남긴 메모를 확인하며 점점 친구가 되어가는 ‘타키’와 ‘미츠하’ 언제부턴가 더 이상 몸이 바뀌지 않자 자신들이 특별하게 이어져있었음을 깨달은 ‘타키’는 ‘미츠하’를 만나러 가는데...</p> <p>잊고 싶지 않은 사람 잊으면 안 되는 사람 너의 이름은</p>

[출처] 네이버 영화

2. 영화를 보고 느낀 점

조주연(바이오공학과 20144247)

영화의 마지막 장면의 대사는 ‘당신(너)의 이름은’이다. 영화를 처음부터 본 사람이라면 이 대사가 단지 이름을 묻는 질문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서로를 잊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느낌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묻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느끼기에 가장 알맞은 해석이 아닐까 싶다. 이 영화를 제작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의도한 ‘너의 이름은’에 대한 해석은 이렇다. ‘이름을 묻는 것으로부터 관계가 출발한다.’ 모든 영화(뿐 아니라 문학작품)가 그렇지만 제목이 내용에 대한 것을 함축적으로 나타내 준다. 감독의 말을 듣고 나서 이 영화 역시 그렇다는 것에 고개가 절로 고덕여졌다.

처음 이 영화의 예고편을 보았을 때는 몸이 뒤바뀐 소년 소녀가 서로를 만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뻘한 내용인 줄 알았다. 그래서 영화의 평점이 높은 이유와 관객들의 평이 좋은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영화를 본 후 사람들의 반응에 의아해 했던 것이 이해가 갔다. 영화에는 반전이라면 반전인 내용이 있었고 생각보다 가볍지 않은 분위기로 이야기를 이끌어갔다. 그래서 영화관을 나와서도 여운이 있었고 나와 같이 영화를 보러간 영어 클럽 멤버는 나중에 혼자 영화를 한 번 더 봤다고 한다. 그 정도로 임팩트있는 영화였다. 나는 내용과 분위기도 좋았지만 특히 좋았던 것은 OST였다. 아직도 영화 OST를 종종 듣는데 들을 때마다 영화 내용과 그 느낌이 기억나고 아련해지는 기분이 든다. 영화와 노래가 굉장히 잘 어울렸고 영화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한 몫 단단히 했다고 생각한다. OST가 매우 좋았지만 영화의 모든 요소가 100% 좋았던 것은 아니다. 나는 시간여행을 하는 영화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 영화는 시간이 뒤틀리는 부분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혜성이 떨어진 것은 3년 전이고 3년 전에 미츠하가 죽었다는 이야기 인데 3년 후인 영화 속 ‘현재’에서 타키와 몸이 바뀌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또한 타키가 미츠하를 알기 전 미츠하가 먼저 타키를 알게 된 이유는 미래의 타키와 연락을 한 것일까?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의 미츠하와 3년 전 타키가 만나고 ‘현재’의 타키와 3년 전 미츠하가 몸이 바뀐 것일까? 물론 내 이해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때문에 영화관을 나와서 여운과 더불어 살짝 찝찝한 느낌을 버릴 수 없었다. 그래도 이 영화는 반전과 시간여행이라는 내가 좋아하는 요소들과 일본 특유의 분위기가 잘 녹아 있는 영화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만약 나와 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고 이 영화를 아직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만족할만한 영화라고 생각하여 꼭 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김예준(바이오공학과 20134208)

올해 처음 본 영화는 바로 ‘너의 이름은’ 이라는 영화이다.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 장르에서 색감을 아름답게 잘 표현해 내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만든 영화이다. 우연히 페이스북 광고로 보게 된 쿠키영상을 통해 이 영화를 알게 되었다. 영상을 본 순간 이미지나 풍경들을 너무도 아름답게 표현해서 감탄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 영화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개봉 후 바로 이 영화를 보러 갔다. 나는 이 영화가 그 어떤 영화보다도 일본 특유의 감성적인 부분이 돋보이고 풍경을 아름답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했다. 내용에서 1200년을 주기로 지구에 다가오는 혜성의 기적이 시작되고, 도쿄에 사는 소년 ‘타키’와 시골에 사는 긍정적이고 털털한 성격의 ‘미츠하’는 서로의 몸이 뒤바뀌는 신기한 꿈을 꾸다. 서로의 몸이 바뀐다는 점에서는 다른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 영화에서는 단순히 몸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스토리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다. 기적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존재하고 기적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하고 놀랍다. 그 기적으로 원래는 죽게 되는 ‘미츠하’를 살려내게 되지만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타키’와 ‘미츠하’는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것과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것만 기억한 채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렇지만 기억을 잃기 전 서로 얼굴을 보면 알아 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졌고 서로를 오랜 시간 동안 찾아 다녔고 결국에는 서로를 만나게 되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알 수 없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이렇게 뒤를 알 수 없는 열린 결말을 많이 내놓는데 그 이유는 영화 속 인물들도 우리처럼 각자의 인생이 있다고 생각해서라고 한다. 그렇게 열린 결말로 마무리해서 관객과 팬들은 큰 여운을 가지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이 영화에 감동과 여운 때문에 2번 보게 되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동과 미묘한 감정들이런 많은 것들이 전해 졌다. 사실 꿈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매일 매일 꾸지만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고 때로는 깨어있을 때보다도 더 감동을 받기도 하고 더 슬프기도 하다. 그런 미묘한 느낌과 감정을 영화로 표현해내는 것이 정말 놀라웠다.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시간 모든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그것들은 이어진다. 그러한 어떻게 보자면 철학적인 내용을 영화 속에 같이 담아내어서 관객들이 더 큰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커다랗지만 미묘한 감정을 받고 꿈에서 깨어나면서 그것들에 대한 기억을 잃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 때문에 그 경험이 영화에서처럼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영화가 더 아름답게 되고 팬들에게 더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더 킹

1. 감상 영화 소개 및 줄거리

영화감상 일시	2017년 1월 20일 금요일
영화감상 장소	의정부 CGV
영화 제목	더 킹
감독	한재림
주연	조인성 정우성 배성우 김아중 류준열
영화 장르	범죄
줄거리	<p>대한민국의 왕은 누구인가? 무소불위 권력을 쥐고 폼 나게 살고 싶었던 태수는 우여곡절 끝에 권력의 설계자 한강식을 만나 핵심 라인을 타고 승승장구 하게 된다</p> <p>정권이 교체되는 중요한 시기, 새로운 판을 짜며 기회를 노리던 이들 앞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치는데...</p> <p>대한민국이 속 시원하게 뒤집힌다!</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네이버 영화</p>

2. 영화를 보고 느낀 점

조주연(바이오공학과 20144247)

나는 해피엔딩의 영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악역들에게 시원하게 복수하며 영화를 끝맺는 결말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영화를 다보고 나니 영화 ‘내부자들’이 생각이 났다.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갖고 살아가며 비리를 고발하며 이야기를 진행하는 굵직한 스토리가 비슷하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신선함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다. 만약 더 킹이 내부자들보다 먼저 나왔다면 내부자들에 대한 평이 지금과 같을 것이다. 그 외에는 세세한 인물간의 이해관계가 조금 헷갈렸다. 등장인물들도 많아서 배역 이름을 기억하기 쉽지 않았던 것도 단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내레이션을 통해 전체적인 내용이해를 할 수 있었다.

영화에서 주로 다루는 비리, 돈, 권력이 참 흔한 주제이지만 이런 주제를 다루는 영화를 볼 때마다 감정이입이 잘되었다. 내가 만약 저 주인공이었다면, 또는 그 주변 사람이었다면? 이 영화에선 최두일이라는 인물이 인상 깊었는데 의리를 중요시 하는 인물이다. 극 중 인물간의 오해들이 쌓여 ‘최두일’과 ‘박태수’가 갈등하는 장면에서 나는 감탄을 하기도 했다. 의리를 중요시하는 ‘최두일’은 목숨을 바쳐 친구 ‘박태수’를 구하기도 했다. 그래서 ‘최두일’이 이 영화에서 가장 멋진 생각과 행동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 인물을 보며 흔히 말하는 짝내가 났다. 가장 진심으로 행동한 사람인데 감옥에 수감되기도 하고 쫓겨 다니기도 하고 결국엔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영화의 해피엔딩은 마음에 들었지만 ‘최두일’의 죽음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니 다르게 생각해서 최두일이 죽음으로써 박태수가 각성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니 최두일이 죽어도 살아도 꽤 괜찮은 결말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결과적으로 영화에 감정이입을 함으로써 극 중 인물의 성격이나 행동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처음 내부자들을 보았을 때 꽤 충격을 받았었다. 정치판에 대해 생각보다 많이 더러운 곳이고 도둑놈들과 나쁜 놈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영화 속에서 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정의를 실현 한, 비교적 좋게 보이는 인물들 역시 순수하게 국민을 위해 비리를 고발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았을 때 충격을 받았다. 영화 마지막에 ‘한강식’과 ‘양동철’을 고발한 박태수가 순수하게 국민을 위해 고발하지 않은 것처럼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고 다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뿐이었다. 이 같은 생각을 하니 회의감이 들었다. 비리도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켜본다면 없어질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김예준(바이오공학과 20134208)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돈, 명예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된다. 나는 아직도 정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영화에서 ‘한강식’이란 인물의 대사 중에 그런 말이 있었다. 정직하게 소신을 지키면서 살면 뭐하냐고 친일파들은 지금까지도 자식들이 땡땡거리며 잘사는데, 독립군들은 지원금 안 나오면 먹고 살 수도 없다고... 맞는말이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도 그래 왔다. 그렇지만 자신의 소신을 지키고 명예를 찾으며 가족들과의 화목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무엇이 맞는 것인지 나는 아직도 정말 모르겠다. 나는 간신들이나 돈과 권력을 위해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부류보다 정직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대우받고 힘을 가지는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그 반대의 모습들이 팽배하다. 악하게 자신의 이득만 바라보는 이들이 주목 받고 이득을 챙겨간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올바르게 나아가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악하게 흘러가는 세상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공조

1. 감상 영화 소개 및 줄거리

영화감상 일시	2017년 1월 25일 수요일
영화감상 장소	의정부 CGV
영화 제목	공조
감독	김성훈
주연	현빈 유해진 김주혁
영화 장르	액션
줄거리	<p>비밀리에 제작된 위조 지폐 동판을 탈취하려는 내부 조직에 의해 작전 중 아내와 동료들을 잃게 된 특수 정예부대 출신의 북한형사 ‘림철령’ (현빈).</p> <p>동판을 찾아야만 하는 북한은 남한으로 숨어든 조직의 리더 ‘차기성’ (김주혁)을 잡기 위해 역사상 최초의 남북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그 책임자로 철령을 서울에 파견한다. 한편, 북한의 숙내가 의심스런 남한은 먼저 차기성을 잡기 위한 작전을 계획하고, 정직 처분 중인 생계형 형사 ‘강진태’ (유해진)에게 공조수사를 위장한 철령의 밀착 감시를 지시한다.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철령과 임무를 막아야만 하는 진태.</p> <p>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일, 한 팀이 될 수 없는 남북 형사의 예측불가 공조수사가 시작된다!</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네이버 영화</p>

2. 영화를 보고 느낀 점

조주연(바이오공학과 20144247)

영어 클럽활동을 통해 영화 '더 킹'을 봤었는데 당시 '공조'도 굉장히 보고 싶었다. 그래서 혼자 따로 공조를 보게 되었다. 공조의 남북 합동수사라는 주제가 매우 흥미로웠다.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현실감이 진해서 그런지 몰입도 굉장히 잘되었다.

영화를 직접 본다면 두 주인공의 우정이나 의리가 굉장히 잘 와 닿을 것이다. 딱딱하게만 보이던 북한 형사가 남한 사람들과 지내면서 마음을 열고 서로 돕는 것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간질간질하였다. 이것은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북한 사람들은 감정을 직접 표출하지 않고 남한 사람들만큼 살갑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고위급 사람들에게 억압받는 환경으로 인해 감정을 표현 하는 것에 자유롭지 못하고 억눌려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 생각을 바탕으로 극 중 임철령을 본다면 강진태의 가족이 임철령에게 보여준 표현이 굉장히 와 닿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뭉클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싶다.

영화를 보고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임철령과 강진태가 통일 전까지는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한 민족인데 서로를 적이라고 생각하며 분단되어 있어 만나지 못하는 것이 가슴이 아팠다. 실제로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6.25전쟁 때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가족들을 북쪽에 두고 왔을 그 심정이 어떨지 나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영화 주인공을 보고도 그런 감정이 드는데 이산가족의 슬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나의 할아버지가 직접 겪으셨다는 것을 알고 나서 부터는 남북한과 관련한 내용에 표면적으로만 접근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영화의 끝은 어떻게 되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또, 극 중 인물들이 느끼는 소소한 감정들(예를 들면 간단하게 술 한 잔 하자는 말도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일들로부터 느껴지는 감정 즉, 이런 간단한 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어렸을 때 남북한이 통일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머리가 커갈수록 통일된 후 장점보다 단점을 먼저 보게 되어 통일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통일에 찬성한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만 통일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문제점들을 빨리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영화를 통해 분단국가에서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써 한 민족이 갈라지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고, 모든 형태의 분단이 사라지는 세상이 오길 진심으로 바란다는 것이다.

라이언

1. 감상 영화 소개 및 줄거리

영화감상 일시	2017년 2월 1일 수요일
영화감상 장소	의정부 태흥 CGV
영화 제목	라이언
감독	가스 데이비스
주연	써니 파와르/데브 파텔/니콜 키드먼/데이비드 웬햄/루니 마라
영화 장르	드라마
줄거리	<p>5살, 인도에서 호주까지 - 7,600km의 거리 형을 기다리다 기차에서 깜빡 잠들어버린 다섯 살 ‘사루’는 집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눈을 뜨게 된다. 낯선 기차역에 홀로 남겨진 ‘사루’는 보고 싶은 엄마와 형을 애타게 불러보지만 기억나는 것은 형 ‘구뚜’의 이름과 정확하지 않은 동네 이름뿐. 수 개월 동안 이곳 저곳을 떠돌며 힘겹게 살아가던 ‘사루’는 결국 인도를 떠나 호주에 살고 있는 새로운 가족 곁으로 가게 된다.</p> <p>30살, 호주에서 인도까지 - 25년의 시간 성인이 된 ‘사루’는 대학원에서 우연히 인도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 혼란에 빠진다. 자신을 애타게 부르고 있을 엄마와 형에 대한 생각에 괴로워하던 ‘사루’는 ‘구글어스’로 전세계 어디든 찾을 수 있다는 친구의 말에 가느다란 희망을 붙잡고 25년 만에 집으로 가는 길을 다시 찾기 시작하는데...</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네이버 영화</p>

조주연, 김예준 학생 최종보고서

1. 프로그램 개요

- 1) 프로그램 명 : 영어 클럽
- 2) 참여자 : 조주연(바이오공학과 14) 김예준(바이오공학과 13)
- 3) 활동 현황

가. 활동 횟수 : 총 5회

나. 활동 기간: 2017년 1월 6일 ~ 2017년 2월 1일 (총 10시간)

2. 활동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2017.01.06	17:40-19:40	의정부CGV	영화 제목: 너의 이름은. 관람인: 김예준 조주연
2017.01.20	19:40-22:00	의정부CGV	영화 제목:더 킹 관람인: 김예준 조주연
2017.01.25	16:00-18:15	의정부CGV	영화 제목: 공조 관람인: 조주연
2017.01.31	19:00-21:15	의정부CGV	영화 제목: 공조 관람인: 김예준
2017.02.01	20:00-22:00	의정부 태흥 CGV	영화 제목: 라이언 관람인: 김예준 조주연

2. 프로그램 소감

조주연(바이오공학과 20144247)

동계 학습반을 시작하면서 부터 포천에서 벗어날 수 없겠다고 생각하여 문화생활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포천에 있는 학생들이 포천을 벗어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영어 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바로 지원했다. 나는 거의 꾸준히 한 달에 영화 2편씩 감상하는 편이었는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면서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워졌다. 하지만 영어 클럽덕분에 보고 싶은 영화를 한 달에 거의 3~4번을 볼 수 있었고 영화 감상에 대한 보고서를 써서 내야 했기 때문에 생각 없이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닌 영화를 꼼꼼하게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보니 머릿속에도 더 잘 남았고 느끼는 점도 많았다. 그리고 영화를 본 후 영어 클럽 멤버와 간단하게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며 서로의 견해를 주고받기도 하고 영화를 폭넓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솔직히 처음엔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원했지만 경제적인 지원 외에 더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꽉 차는 느낌을 받았다.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때 영어가 생긴다면 다시 지원해보고 싶다.

김예준(바이오공학과 20134208)

방학을 보내다 보면 자칫 무기력해지고 활기를 잃을 수 있지만 영화 감상을 하면서 활기도 얻고 밖으로도 더 자주 나가게 되면서 생활에 탄력을 얻게 되었다. 방학 동안 컴퓨터 자격증 시험공부만 하면서 지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영화 한편이 지루함을 이기는데 큰 힘이 되었다.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소개받아서 신청하게 되었는데 나에게서는 매우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남았고,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II. 한미영, 김선영, 정유진 학생의 활동보고서

미씽: 사라진 여자

1. 감상 영화 소개 및 줄거리

영화감상 일시	2017년 1월 13일 금요일
영화감상 장소	기숙사
영화 제목	미씽: 사라진 여자
감독	이언희
주연	엄지원, 공효진
영화 장르	미스터리
줄거리	<p>천사 같던 그녀의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거짓보다 더 무서운 진실 그녀를 찾아야만 한다.</p> <p>이혼 후 육아와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워킹맘 지선은 헌신적으로 딸을 돌봐주는 보모 한매가 있어 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p> <p>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지선은 보모 한매와 딸 다은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을 알게 된다. 지선은 뒤늦게 경찰과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양육권 소송 중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한다.</p> <p>결국 홀로 한매의 흔적을 추적하던 지선은 집 앞을 서성이는 정체불명의 남자와 주변 사람들의 이상한 증언들로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녀의 실체에 가까워질수록 이름, 나이, 출신 등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는데...</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네이버 영화</p>

2. 영화를 보고 느낀 점

영화를 보면서 참 불편했다. 불편해지려고 본 영화는 아니었는데 영화가 끝나자 불편함만이 가득 남았다. 이 영화를 본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여성들의 마음이 아마 편치 않을 것 같다. 훗날 내가 직장을 갖게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으나 만약을 이혼을 하게 된다면, 나 역시 극중 지선과 같은 수모를 겪게 될까 두렵다. 그것이 아니라면 한매와 같이 한맺힌 여성을 어디선가 만날지도 모르는 일이다. 영화 미씽은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의 모습, 뿌리깊게 박혀있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고질적인 편견이 짙게 드러난 영화였기 때문에 희망적인 메시지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 더욱 불편한 영화였던 것 같다. 하지만 불편하지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현실을 반영했고 영화 미씽을 봄으로써 그 현실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공조

1. 감상 영화 소개 및 줄거리

영화감상 일시	2017년 1월 29일 일요일
영화감상 장소	영화관(일산)
영화 제목	공조
감독	김성훈
주연	현빈 유해진 김주혁
영화 장르	액션
줄거리	<p>비밀리에 제작된 위조 지폐 동판을 탈취하려는 내부 조직에 의해 작전 중 아내와 동료들을 잃게 된 특수 정예부대 출신의 북한형사 '림철령' (현빈).</p> <p>동판을 찾아야만 하는 북한은 남한으로 숨어든 조직의 리더 '차기성' (김주혁)을 잡기 위해 역사상 최초의 남북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그 책임자로 철령을 서울에 파견한다. 한편, 북한의 속내가 의심스런 남한은 먼저 차기성을 잡기 위한 작전을 계획하고, 정직 처분 중인 생계형 형사 '강진태' (유해진)에게 공조수사를 위장한 철령의 밀착 감시를 지시한다.</p> <p>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철령과 임무를 막아야만 하는 진태.</p> <p>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일,</p> <p>한 팀이 될 수 없는 남북 형사의 예측불가 공조수사가 시작된다!</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네이버 영화</p>

2. 영화를 보고 느낀 점

'단순한 오락영화의 반전'

장르가 액션이라고 적혀있었지만 전형적인 한국형 코미디 액션물이었다. 복잡한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헐리우드 영화처럼 CG가 화려한 것도 아니지만 이 영화가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흥행이 보장된 배우 캐스팅과 머리 쓰면서 힘들게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 스토리가 아니라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단순한 스토리가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측 형사 림철령은 같은 조직에서 일한 동료 차기성의 배신으로 가족을 잃게 되고 북한 측의 명령으로 동판과 차기성을 잡으러 남한으로 넘어온다. 북한은 위조지폐 제작이 가능한 동판을 찾기 위해 남한에 긴급 남북회담을 열고, 남한은 단순한 남북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큰 건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북한에서 올라온 림철령 곁에 남한형사 강진태를 붙여 주위를 감시하라고 시킨다. 서로를 의심하면서도 위기가 닥칠 때면 도움을 주면서 나중에는 진심으로 서로를 도와주려 목숨걸고 나서게 된다.

북한형사 림철령과 남한형사 강진태가 이질감 없이 서로 화합해나가는 모습과 의심을 풀고 서로 도와주는 장면 사이사이에 코믹한 부분들이 영화를 지루하지 않게 했고, 2시간이라는 러닝타임을 끌고 갈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나 강진태가 림철령을 감시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초대했는데 그 가정에서 보여진 강진태의 가족의 모습이 일반 가정집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자연스럽고 코믹했다. 잔소리하면서도 남편이 다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강진태의 아내 박소연, 북한형사 림철령에게 반해 푼수같은 역할을 보여준 처제 박민영, 어린 꼬마지만 할 말 다하는 딸 강연아 역할마다 캐릭터가 다 잡혀있고 연기자들의 연기도 자연스러워서 정말 가족 같았다. 또한 악역 역할인 차기성도 동판을 차지 할려고 끈질기게 살아남는 모습을 통해 긴장감도 느낄 수 있었다. 차기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료도 서슴 없이 죽이고 배신을 끊임없이 한다. 이런 차기성 역할의 김주혁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영화를 보는 내내 욕을 했던 것 같다. 주·조연들의 연기랑 스토리상의 캐릭터들이 다 잘 맞아 떨어져서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본 것 같다. 또한 현빈의 액션연기가 이 영화에서 더욱 돋보인 것 같다. 전에 원빈이 연기한 아저씨처럼 액션연기를 할 때 앵글을 잘 잡아서 활동적이고 빠른 액션연기를 잘 담아낸 것 같다.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물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현실감이 너무 떨어진다는 점이다. 차기성이나 림철령 강진태 모두 칼에 찔리거나 총에 맞아도 잠깐의 힘든 기색만 살짝 보이고 다시 엄청난 액션연기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영화의 흐름이 좀 끊기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이런 현실성 없는 연기에다 림철령과 악당의 액션씬이나 유해진의 익살스러움을 보여주는 씬에서 재미를 느껴서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영화였다.

영화에서처럼 남한과 북한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 위화감 없이 서로의 이념이 부딪히지 않고 잘 살아간다면 통일이 되어도 많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 영화의 또 다른 장점은 갈라져 있는 한국 땅에서 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을 조금이나마 친밀하게 보여줬다는 점이다. 통일이 멀지 가까울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간 이루어질 통일을 위해 조금씩이나마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더 킹

1. 감상 영화 소개 및 줄거리

영화감상 일시	2017년 1월 31일 화요일
영화감상 장소	영화관(노원)
영화 제목	더 킹
감독	한재림
주연	조인성 정우성 배성우 김아중 류준열
영화 장르	범죄
줄거리	<p>대한민국의 왕은 누구인가? 무소불위 권력을 쥐고 폼 나게 살고 싶었던 태수는 우여곡절 끝에 권력의 설계자 한강식을 만나 핵심 라인을 타고 승승장구 하게 된다</p> <p>정권이 교체되는 중요한 시기, 새로운 판을 짜며 기회를 노리던 이들 앞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치는데...</p> <p>대한민국이 속 시원하게 뒤집힌다!</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네이버 영화</p>

2. 영화를 보고 느낀 점

영화 <더킹>은 가난한 학창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아버지에게 맞고 자란 아이가 배운 것이라 고는 싸움뿐이었다. 그런 태수라는 아이는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짱이었고, 그런 태수를 학생들은 건드릴 수 없었다.

어느 날, 태수는 사채업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아버지를 보게 되고 그 때부터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높은 지위나 능력을 가져야 다른 이들에게 밟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공부를 해서 검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된다.

태수는 고생 끝에 검사가 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던 중 태수의 대학선배가 찾아오면서 태수의 삶은 대한민국 1%의 검사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 대한민국을 자신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쥐고 있는 한강식이라는 인물을 만나 세상의 중심에 서기 위해 벌어지는 일들이 펼쳐지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 영화는 태수라는 인물의 시점에서 태수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대기 형식으로 보여주는 식의 영화였다. 이 부분에서 다른 사건위주의 영화와 달라서 새로움을 느낄 수 있었고 내가 마치 박태수가 된 것처럼 박태수라는 인물에 몰입하여 감상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영화는 1980년대부터 2010년대 까지의 대한민국 현대사를 표현하였고 그 안에서 현실에 대한 풍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영화 속에서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 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대사였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하루에도 수 십 개, 수 백 개의 기사들이 올라오고 이슈가 된다. 하지만 그 이슈들이 어떠한 중요한 사건을 덮기 위해,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더 큰 이슈를 가지고 다른 사건들을 덮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영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왕이 되기 위해,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권력을 지니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는데 급급해하지만 결국 나중에 가족, 친구,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도 영화에서와 같은 권력을 쥐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의 권력으로 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원리, 원칙을 무시한 채 살아가지만 그들은 원리와 원칙을 지키고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 보다 훨씬 잘 살고 있다. 나는 이런 현실이 한 순간에 바뀐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친다면 세상은 보다 투명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킹〉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등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떠한 세상이 숨겨져 있는지 관심이 없는 나에게 쉽게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알려주는 영화였다.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는 아직 이러한 권력의 삶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권력에 의해 부딪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고 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쳐나가야 할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한미영, 김선영, 정유진 학생 최종보고서

1. 프로그램 개요

- 1) 프로그램 명 : 영어 클럽
- 2) 참여자 : 한미영(융합경영학과 15) 김선영(융합경영학과 15)
정유진(융합경영학과 15)

3) 활동 현황

가. 활동 횟수 : 총 3회

나. 활동 기간: 2017년 1월 10일 ~ 2017년 2월 6일 (총 18시간)

2. 활동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2017.01.13	19:30~22:00	기숙사	〈미씹〉 영화 관람
2017.01.29	15:55~18:10	영화관(일산)	〈공조〉 영화 관람
2017.01.31	13:30~16:00	영화관(노원)	〈더킹〉 영화 관람

2. 프로그램 소감

한미영(융합경영학과 20156184)

영화나 연극 등 공연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막상 따로 시간을 내서 보러 가는 기회가 적었는데 이번에 동계방학 동안에 영글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과 영화를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평소에는 영화를 보고 나면 끝이었는데 감상 후 감상평이나 영화에 대한 글을 써보면서 다시 한번 영화에 대해 생각해보고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보기만 했던 영화들 보다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영화가 되었습니다.

김선영(융합경영학과 20156111)

평소에 영화를 보러 갈 때 혼자 보러 다녔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난 후에 혼자서 영화가 재미있다 또는 재미없다 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끝이었는데 이번 영글 클럽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작성하기 위해 영화에 대한 소감과 생각을 토론함으로써 영화 스토리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었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친구들의 생각도 들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정유진(융합경영학과 20156172)

평소에 영화 보는 걸 워낙 좋아해서 영글 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듣자마자 신청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신나고 즐거웠던 활동이었다. 평소에 영화 값이 너무 부담이 되었는데 그 부담감 없이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영화를 보고 난 후에 감상문을 쓰게 되면서 평소에는 그냥 보기만 하고 지나쳤는데 훨씬 기억에 오래 남고 영화를 다시 상기시킬 수 있어 좋았다. 방학 때 문화생활을 즐기기 쉽지 않은데 이번 동계 학습반을 통해 함께하는 문화생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